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사람과 지역을 잇는 또 하나의 길

충북의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공공기관이 길 위의 책임을 넘어 이웃의 마음을 잇는 나눔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진천읍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본부장 임종택)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본부 개소 이후 독거노인 생활지원, 청소년 장기후원, 대학생 장학금·멘토링 등 지역에 필요한 나눔을 이어왔다. 올해는 재난·사고 가정 긴급지원과 가족돌봄청년(영게어러) 정서회복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귀를 기울였다.

주목할 대목은 이 나눔이 특정 시기의 행사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과 신뢰를 쌓고 나눔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이번 인터뷰에서는 임종택 본부장을 만나 '일상이 되는 나눔'을 위한 고민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는 어떤 기관인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북지역의 고속도로를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과 미래세대 육성, 환경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며, 고속도로를 통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듯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된 배경은 무엇인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점이 좋은



진천읍 덕금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전경.

‘일회성이 아닌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는 공공기관
독거노인 생활지원부터 가족돌봄청년 정서회복까지

평가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는 기관의 자원과 현장의 사회공헌 수요를 연결하는 사회공헌 매칭 플랫폼 품인 '바로잇'을 통해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정에 긴급지원을 하기도 했다.

단순히 물품이나 후원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 문화를 조성해 온 점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충북본부는 취약계층 돌봄, 미래세대 성장 지원, 환경보호, 농촌 봉사 등 지역사회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두고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생활 지원과 나눔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지

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장기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 공부방에서 학습봉사를 펼치는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취업 멘토링을 제공하여 나눔이 또 다른 성장의 기회로 선순환되도록 돕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꿈과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영게어러)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들을 위한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잠시나마 무거운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재충전할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을 제공했다.

—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난관은 없었는가?

가장 큰 고민은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

램을 발굴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과 수시로 이어지는 소규모 릴레이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마련해 사회공헌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행사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꾸준히 이어지는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사회공헌활동으로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

가장 큰 성과는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쌓고 나눔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학습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기존의 물질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 돌봄까지 사회공헌의 영역을 넓혔다는 점에서 뜻깊었다.

또한 임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이웃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사회가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공기관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계획은 무엇인가?

앞으로도 충북본부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 먼저 독거노인과 취약가정 등 기존 복지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가족돌봄청년, 사회적 고립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새로운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교육·멘토링 활동을 이어가고,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린 교통안전 및 환경개선 프로그램과 자원순환 활동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열린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에서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제27회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 개최

‘다함께 행복한 복지충북’ 영동서 한자리에… 유공자 64명 표창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와 영동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과두준)가 공동 주관하고 충청북도와 영동군이 후원하는 제27회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가 16일 영동 레인보우힐 링관광지에서 개최됐다.

‘다함께 행복한, 따뜻한 복지충북’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김경희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정영철 영동군수, 김오봉 영동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유관기관·단체장과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26년 영동난계 국악축제’ 행사장 내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축제의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었다.

기념식은 조희연예술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사회복지 유공자 시상,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사회복지비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날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64명이 표창을 받았다.

수상 내역은 국무총리 표창 2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7명, 충청북도지사 표창 19명, 충청북도의회위원장 표창 12명, 영동군수 표창 6명, 영동군의회위원장 표창 2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공로상 1명,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11명, 미래복지개발원 이사장 표창 4명이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는 영동군 내 사회복지시설·기관이 참여한 홍보부스 6동이 운영됐다. 참석자들은 부스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체험하고 기관별 주요 활동을 살펴보고 지역 내 복지기관의 역할과 활동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응모 회장은 “이번 대회가 복지현장의 헌신을 격려하고 서로의 노고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두준 회장은 “영동에서 도내 사회복지인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어 뜻깊다”며 “이번 대회가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다지고,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00년 지정됐으며, 매년 9월 7일 기념하고 있다.

충북도, 청주의료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정

경증 장애인 대상 치과진료… 내년 9월까지 시범운영

충북도는 경증 장애인이 거주지 인근에서 편안하게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청주의료원을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지정하고, 2027년 9월까지 1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국립재활원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은 18.4%에 불과하며, 검진을 받은 장애인 중 43.8%는 ‘당장 치료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다. 현재 충북은 한국병원(권역센터)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경증 치과진료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권역센터로 집중되면서 평균 진료 대기 시간이 중앙센터 175일, 권역센터 134일에 달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충북도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을 통해 경증 장애인의 치료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앙·권역센터 진료 수요를 분산할 방침이다.

진료 대상은 행동 조절이 가능해 전신마취나 약물진정 없이 일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으로 구강검진, 불소도포·치석제거 등 예방진료, 충치치료 등 일반 치과진료와 구강 재활을 제공한다.

나기효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장애인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검진과 치료를 제때 받도록 지원하겠다”며 “권역센터·보건소와 협력해 도내 지역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임직원들이 농기계 무상정비 봉사를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임직원들이 농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 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쉽고 간편하게 사회복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1 발송횟수: 주 3회

02 발송내용

- 도내 사회복지 행사(주 1회)
- 유관기관 공모사업(주 2회)

03 발송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청주시 ‘어르신 그늘해드림’ 시범사업 본격 추진

65세↑ 저소득 노인가구 대상... 생활불편 35개 항목 지원

청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소규모 생활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맞춤형 생활복지서비스 ‘청주 어르신 그늘해드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 2일 문화제조창 5층 공연장에서 ‘청주 어르신 그늘해드림 읍·면·동 기반발대식 및 직무교육’을 개최하고 시범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청주 어르신 그늘해드림’은 형광등·수전 교체, 문고리 수리 등 어르신들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속 불편을 기동반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다.

시범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된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법정 저소득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는 가구당 연간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방문시 최대 3개 항목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어르신들의 수요가 많은 35개 지정 항목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수리에 필요한 소모품 등 재료비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장섭 청주시장을 비롯해 청주시의회 의원, 사업수행기관 관계자, 읍·면·동해드림 기동반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청주시주거복지센터 내에 ‘청주 어르신 그늘해드림 센터’를 개소했다.

현판식에는 이장섭 청주시장과 시의회 의원, 지역자활센터, 충북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유관



청주시는 ‘어르신 그늘해드림’ 기동반 발대식을 개최했다.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시는 전담센터와 읍·면·동 기동반을 중심으로 대상 가구의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현장 지원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어르신들의 일상 속 소소한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는 것이 생활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의 시작”이라며 “해드림 기동반이 어르신들의 든든한 생활 해결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양군, 행안부 저출산 대응 공모 ‘전국 최우수’

매포여성발전센터 리모델링해 통합 돌봄 지원센터 조성

단양군은 14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장점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단양군은 ‘매포 아이돌봄 지원센터 조성사업’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확보한 특별교부세 6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약 30억원을 투입, 매포여성발전센터를 육아·돌봄 통합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부족한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

금 등을 활용해 확보할 방침이다.

센터 본관 1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배치하고 2층에는 실내놀이터와 수영장 등 놀이·편의시설을 마련한다.

정보화교육장으로 사용 중인 별관은 여성단체 사무실과 교육실 등으로 재구성해 기존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공간을 리모델링해 분산된 육

아·돌봄 기능을 한곳에 모으는 것이 핵심이다. 군은 돌봄과 놀이, 교육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줄이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아이들은 즐겁고 부모들은 안심할 수 있는 지역 대표 육아·돌봄 거점으로 조성해야 키우기 좋은 단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 취약계층 위한 ‘마을행정사’ 3명 위촉

인허가·민원서류 작성 등 행정업무 무료 상담

음성군은 행정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행정상담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을행정사’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군은 지난달 29일 음성군행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에서 활동할 마을행정사 3명(박노정·강준원·한동희)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마을행정사는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으며, 2년간 취약계층을 위해 행정전문가로서 재능기부방식의 무료 행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용 대상은 음성군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등 행정사수입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이다. 상담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상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 등 민원서류 작성 지원, 이밖에 전문적인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무료 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상담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과 행정사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 방식으로 모두 가능하다.

조병욱 군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서류작성 때문에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많았다”며 “이번에 위촉된 마을행정사들의 전문성과 헌신적인 재능기부가 군민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는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성군은 음성군행정사협회와 마을행정사 위촉·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음성군 마을행정사와 관련 eumseong.go.kr)에서 확인할 수 된 내용은 음성군청 누리집(www.eumse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유용모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043-234-0840	FAX	043-234-0849
E-mail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www.043w.or.kr

진천군, 몽촌 마을 만들기 사업 준공식 개최

빈집 철거 부지 활용해 소통·휴식 공간 마련

진천군은 20일 덕산읍 몽촌마을회관에서 ‘몽촌 마을 만들기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 2024년부터 3년간 4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을 통해 연면적 103.7제곱미터(약 31평) 규모의 마을공동이용시설이 조성됐으며,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됐다.

특히 마을 내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빈집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주민소통과 휴식,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 사회의 모범적인 우수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서비스를 확대하고, 주민 스스로 공

동체를 운영·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자율적 기반을 지속해서 다져나갈 방침이다.

이호준 군 농업정책과장은 “주민들의 깊은 애정과 자발적 노력으로 결실을 본 이 공간이 이웃 간 정을 나누는 소통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특성과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지속가능한 농촌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성지병원, 암환자 전문회복 ‘암케어센터’ 개소

치료 전후 회복, 통증·영양·재활 관리까지



제천성지병원은 암 환자의 치료 전후 회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암케어센터를 개소했다.

제천성지병원은 제천지역 최초로 암 환자의 치료 전후 회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암케어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했다.

센터 개소는 성지병원이 추진해 온 전문진료 역량강화의 연장선으로 최근 내과 전문의를 추가 영입해 내과 검진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환자의 회복과 통증·영양·재활 관리까지 진료 영역을 확대하게 됐다.

센터는 암 수술과 항암·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부담과 통증을 관리하고 치료 이후 환자가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병원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과정에 따라 고주파 온열치료, 고압산소치료, 항암 면역 주사 등 다양한 치료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제천성지병원은 이번 센터 개소로 지역 암 환자들이 치료와 회복관리를 위해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을 오가는 부담을 줄이고 지속관리를 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병원은 기존 비수술센터와 인공관절 로봇수술센터, 내과, 검진을 비롯한 각 진료과와 협으로 암 환자의 기저질환과 통증, 신체기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제천성지병원 관계자는 “암 환자에게는 암 자체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수술이나 항암·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과 체력 저하를 관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제천과 단양 등 도내 북부지역 암 환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체계적인 치료 전후 회복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시, 서울시와 손잡고 교육격차 해소 나서

서울런 운영 노하우 공유... 고교생 250명 우선 지원

충주시는 서울시와 함께 9월 29일 충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동석 충주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교육복지 플랫폼인 ‘서울런’의 운영 경험을 충주시에 공유하고, 충주시는 이를 활용해 공공학습플랫폼 ‘충주런(가칭)’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런은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비롯해 AI 맞춤형 학습, 대학생 멘토링, 진로·진학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

육복지 정책이다. 충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과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습 및 진학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충주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교육취약계층 고등학생 250명에게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우선 제공하고, 향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 여건으로 인한 지역 인재의 유출을 줄이고, 지역 청소년들이 보다 폭넓은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200여 명의 학생을 위해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



이동석(오른쪽) 충주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었지만, 단 한 명의 충주시 학생이라도 서울런을 통해 대학 진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신념은 확고했다”며 “서울런을 시작으로 충주의 교육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되어 있으며,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한 단체

봉사단 혜택

활동재료 지원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관리
봉사활동 연계
우수봉사단 표창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추천)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 ☎ 043-234-0840~2

영동군, 임신·출산 통합지원센터 조성 본격화

특별교부세 5억 확보… 보건소 내 전용 공간 새단장

영동군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고, ‘임신·출산 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군 보건소 재활센터 2층 한방건강증진실 공간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데 투입해 2027년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를 완료하고 2028

년 1월 정식 개관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임신부 휴게실, 수유실 및 기저귀 교환실, 맘카페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군은 센터를 통해 예비부모·임산부·영유아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가족

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분산된 지원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할 방침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출산 통합지원센터 조성은 모자보건 공공 인프라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군,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읍·면 순회 상담… 세무상담도 병행

영동군은 주민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은 생업이나 경제적 어려움, 지적 여건 등으로 법률전문가를 만나기 어려운 군민을 위해 변호사 등이 직접 읍·면을 찾아가 상담을 제공하는 주민 밀착형 법률서비스다.

군은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읍·면을 순회하며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법률상담뿐 아니라 영동세무서와 연계한 세무상담도 함께 제공해 주민들이 한자리에서 법률과 세무 분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통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법률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생활 속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설치 협약

보은신한헤센아파트에 조성… 2027년 7월 개소 예정

보은군은 지역 내 초등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방과 후와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7일 군수실에서 보은신한헤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박헌석)와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설치·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온-종일 돌봄 보은군 책임제’ 추진의 일환으로 2024년 11월 보은군가족센터 1층에 정원 20명 규모의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개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센터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내 203.5제곱미터 규모의 보육시설을 1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군은 해당 시설을 리모델링해 정원 40명 이하 규모의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보은군은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설치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형 군수는 “돌봄공간 마련에 뜻을 모아주신 보은신한헤센아파트 입주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드린다”며 “2호점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편

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소 준비에 힘쓰고, 먼 지역을 포함한 지역별 돌봄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은군, 소아청소년과 ‘원정 진료’ 아동에 교통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7세 미만 아동 대상 진료 1회당 5만원·연 최대 20만원 지원

보은군은 지역 내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으로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아동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한다.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1회당 5만원씩 연간 최대 2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같은 날 여러 차례 진료를 받더라도 1회로 산정한다.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진료 지역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은군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었던 보은한방병원이 지난 4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중단하면서 해당 진료가 필요한 아동과 보호자들이 청주 등 인근 지역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군은 이번 교통비 지원으로 다른 지역에서 진료받아야 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괴산군, 경로당 4곳 신·증축… 어르신 쉼터 확충



괴산군은 지난달 14일 추산마을 경로회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군비 12억여 원 투입, 출향인 기부로 숙원사업 해결

괴산군은 올해 군비 12억여 원을 투입해 판내 경로당 3곳을 신축하고 1곳을 증축하는 등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확충했다고 14일 밝혔다.

휴식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간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는 마을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청천면 분회경로당은 증축 공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시설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였다.

더해져 의미를 더했다. 영춘마을은 경로당 신축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마을 출신 기업인 이진수 씨가 1169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기부하고 건축비와 부대비용 등 5000만원을 후원해 오랜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진수 씨는 과거에도 마을 어르신 효도 관광과 장학사업 등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마을 주민들은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경로당 부지에 공덕비를 세웠다. 군 관계자는 “경로당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주민들과 고향을 위해 섰듯 나눔을 실천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옥천군,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돌봄 강화



옥천군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지역지원기관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

국비 5000만원 확보… 60가구에 관리 서비스 시범 운영

옥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지역지원기관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

제공할 주체를 발굴하고,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6월까지다.

동체 지원센터 운영법인으로, 그동안 축적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8개 면 지역의 서비스 수요를 조사하고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조직 4개소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60가구를 대상으로 방충망·전등·수전 교체 등을 지원하는 ‘농촌형 주거 관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여 안전한 주거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가정 방문 시 주민의 안부까지 살피는 ‘눈짓 돌봄’ 체계도 가능한다. 단순한 생활 지원을 넘어 위기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농촌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소득을 활용한 서비스 구매 모델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3개소 이상의 농촌서비스 지역공동체 지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증평군, 스마트경로당 조성으로 어르신 복지 강화

경로당 30여 곳·돌봄센터 3곳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증평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7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돼 내년부터 스마트경로당 조성에 나선다.

군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문화·여가·건강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 건강검진 등이다.

순회 건강검진 서비스와 안전센터는 지역 내 모든 경로당에 도입하고, 비대면 프로그램은 경로당 30여 곳과 온마을 돌봄센터 3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재형 군수는 “어르신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간인 경로당에 ICT를 적용해 어르신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면

규격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 x 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 ~ 7면	4단 (360mm x 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250,000
	세로포스터 (150mm x 195mm)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과 (T.043-234-0840~2)

가족 활동지원인력 서비스, 2028년까지 허용

최중증 발달장애인 · 희귀질환자 대상... 돌봄 공백 해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

적으로 허용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도서 · 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만 2024년 11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의 서비스 제

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2026년 10월 31일까지였던 허용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2개월 연장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으며, 연장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해당하는 가족 수급자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

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돼 수급자에게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활동지원급여는 올해 기준 월 최소 약 60시간(104만 원)에서 최대 약 480시간(829만 3000원)까지 지원된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최중증 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마련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 공개... 위탁 급식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어르신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 공개, 영양 · 위생 관리 강화, 위탁 급식 관리 기준 구체화 등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급식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세부 기준이 없어 부실 급식 우려와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급식 서비스 제공 체계 강화'를 반영하고, 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식사재료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기관은 입소자와 보호자가 비용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식

사재료비로 받은 비용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했다. 영양 · 위생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어르신의 기능 상태와 저질환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을 제공하고,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시설 청결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입소자 50인 이상 기관은 의무 배치된 영양사가 '위생관리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은 시 · 군 · 구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 전문적인 영양 · 위생 관리 지원을 받도록 했다. 위탁 급식 관리 기준도 구체화했다. 영양사와 조리원을 실제로 고용한 적격 업체에만 급식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급식의 질을 높인다. 또한 위탁 급식 시에도 가급적 기관 내 조리실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적절한 계약 단가 설정과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록 해 부실 급식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해당 기준을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현장

에서 제기되는 개선 필요 사항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반영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안전망에 정신건강복지센터 · 가족센터 등 추가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 확충

성평등가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이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우울 · 불안이나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과 의료서비스, 가족지원 등을 보다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청과 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경찰관서, 보건소 등 지역사회 기관이 협력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다. 최근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

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가족상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시 · 군 · 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하고, 기관별 협력 업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부터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상담 1388 개편을 통해 전화상담 중앙센터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 신호를 조기에 파악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112 · 119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위기청소년 대상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을 확충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 ·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험업권,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험업권의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보험업계, 취약 어르신 돌봄에 96억원 투입

낙상 치료비 · 건강관리 ·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9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원을 포함해 총 105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약 57만명에게 금융 ·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 계층 치매 환자 약 8만명에게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지원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사업은 낙상사고 치료 · 회복비 지원,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낙상사고로 타박상 · 염좌 · 골절 등을 입은 어르신에게

신체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 · 회복비를 차등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5억원이며, 어르신 본인이나 담당 생활지원사가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에는 4억원을 투입한다. 생활지원사가 경찰청 교육자료 등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과 모바일뱅킹 이용법 등을 대면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헬스케어 서비스에는 39억원을 투입해 전화 건강상담, 건강검진 결과 분석, 복약 안내, 고혈압 · 당뇨 등 만성질환별 식단 관리 등을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병원 · 의료진 안내와 진료예약 대행은 물론 진료 후 상담과 영양관리 등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고령과 우울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서는 15억원을 투입해 신체 · 정신건강 진단검사를 실시

하고, 집중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우울 예방 및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업에 적극 참여한 생활지원사와 어르신에게는 2억원 규모의 별도 보상도 지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치매 환자 약 8만명에게는 20억원을 투입해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 보험은 치매 환자가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은 등록 환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올해 4분기 중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수행기관과 보험사 등을 선정할 뒤,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초기 상담과 신청이 집중돼 서비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수행 보험사를 나눠 운영할 방침이다.

건강 나빠져도 거주... 노인복지주택 입주 요건 완화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주택 입주 후 건강 상태가 나빠지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이어야 입소와 지속 거주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등 일정한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경우에도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입소자 권의 보호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입소자 의견을

운영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입소자대표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입소자들이 과반수 동의로 대표회의를 구성해 시설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시설장은 관리비 부과 내역과 서비스 운영 상황을 대표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고 설치 · 운영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며, 설치 · 운영자가 없거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역할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노인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 주거지원서비스(일명 '중간집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폭염 · 한파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실시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예시로 '단기 주거 지원 서비스'를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근거를 신설하며 센터장 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올해 11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에서는 복지+디자인+주택의 개념을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해와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 구성

주택체험관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한
거주공간 설계를 통해 모두가
불편함 없는 생활 공간 체험

유디체험관

모두를 위해 디자인 된
UD적용 일상용품 이해

휠체어 체험관

이동약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휠체어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주행 체험

교육 신청하기 >

043-234-0840~2

건협 충북세종지부, 4년째 사회복지 지원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기부금
임직원 전문성 향상 뒷받침

KH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본부장 차재구, 이하 건협)는 20일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이하 협의회)에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202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까지 4년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협의회 임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건협은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으로, 협의회와 지속적인 협력과 나눔을



KH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충청북도의 지원으로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 '건강한 힐링' 사

업의 거점병원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차재구 본부장은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나눔과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응모 회장은 "4년 연속 협의회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꾸준히 후원해 주신 건협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을 임직원의 역량강화와 협의회 발전을 위해 의미 있게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건협과 협의회는 상호 협력과 나눔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청주상공회의소 회원기업 19곳, '그냥드림' 동참

취약계층 3870만원 기부
먹거리·생필품 지원 활동

청주상공회의소(회장 차태환)는 13일 청주푸드마켓에서 이장섭 청주시장, 차태환 회장, 회원기업 대표, 사회복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그냥드림 확산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청주상공회의소 회원기업 19개사는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현금 2200만원과 현물 1670만원 등 총 3870만원 상당의 후원금과 물품을 기부했다. 기탁된 기부금과 물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먹거리·생필품 꾸러미 제작 및



청주상공회의소는 '2026년 그냥드림 확산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BRT)가 지역 상공회의소와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국상의 공동챌린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역 기업이 자

발적으로 나눔에 동참하고, 이를 전국 단위 사회공헌 활동으로 넓혀 간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현장에는 지역 경제계와 행정, 복지 현장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관이 협력하는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차태환 회장은 "지역 기업들이 뜻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충북4-H연합회, '농산물 꾸러미' 나눔 실천

직접 생산한 11개 품목 구성
500세대 대상 1000만원 상당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조은희)은 12일 도내 취약계층 500세대를 대상으로 청년4-H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 500개(1000만원 상당)를 충북광역푸드뱅크(회장 유응모)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산물 꾸러미는 충북 4-H연합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감자, 쌀, 오이, 요거트, 포도즙 등 11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회원들의 정성과 농업의 가치를 담아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



충북농업기술원은 도내 취약계층 500세대를 대상으로 청년4-H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꾸러미를 충북광역푸드뱅크에 기탁했다.

천하고자 마련했다. 농업 현장에서 맘 흘러 키운 먹거리를 직접 나누는 점에서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청년 농업

인의 사회적 역할을 보여 왔다는 평가다. 충청북도4-H연합회(회장 김주건) 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농

산물 소포장과 꾸러미를 직접 제작했다. 기탁된 꾸러미는 충북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시군 푸드뱅크로 전달돼 지역 내 취약계층에 배부됐다. 김주건 회장은 "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응모 회장은 "청년 4-H회원들이 정성껏 키운 농산물을 나눠주셔서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나눔이 필요한 가정에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시군 푸드뱅크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충북도는 충북 경로자 무임교통카드 출시를 위해 신한카드,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도·신한카드, 경로자 무임교통카드 출시

만 65세 이상 충북도민 대상
수도권 전철 '무료' 접근 향상

충북도는 도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수도권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충북 경로자 무임교통카드(충북시니어패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7일 청주엔포드호텔에서 신한카드,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와 함께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신한은행과 협력해 카드 홍보활동 및 현장 신청접수 행사를 추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용한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 이명식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장, 박병천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도내 경로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뜻을 모았다. 그간 중앙선 복선화 및 중부내륙선 개통, 오송역 활성화 등으로

충북 북부지역을 비롯한 도민들의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도내 만 65세 이상 경로자들이 수도권 전철을 무료로 이용할 때는 매번 신분증을 인증하고 보증금 500원을 지불한 뒤 일회용 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충북도는 경로자 수도권 전철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한카드와 협력하여 반복 사용이 가능한 '태그(Tag)형 무임교통카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도시철도(지하철·경전철) 승하차시 개찰구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무임 처리된다. 다만, 시내버스, 택시 등 타 교통수단 이용 시에는 기존과 같이 요금 부과되며 선불 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의 공익사업으로 추진되는 본 카드 발급은 10월 7일부터 상시 가능하며, 대면 발급의

경우 전국에 있는 신한은행 영업점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초)본을 지참해 방문하면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비대면 발급은 신한카드 무임교통 발급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 ☎080-850-0483)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단,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한다. 신용한 지사는 "도내 38만여 명의 어르신들께서 수도권을 방문하실 때 겪었던 일회용 승차권 발급의 번거로움이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뜻깊은 사업을 함께 추진해 주신 신한카드와 카드 이용 활성화에 기여해 동참해주신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활기찬 여가 생활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도민체감형 민생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옥천 지역사회, 장애인 바리스타대회 힘 보태

한전 등 120만원 후원

옥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황명구)은 6일 복지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옥천지사(지사장 박종경)와 한전MCS 주식회사 3개 지점으로부터 총 12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이번 후원에는 한국전력공사 옥천지사와 한전MCS 주식회사 옥천지점(지점장 이강춘), 영동지점(지점장 이기홍), 동청주보은지점(차장 강강호)이 참여했으며, 각 기관은 30만원씩 후원금을 마련했다. 후원금은 28일 개최된 '제2회 옥천군장애인복지관장배 충청북도 남부3군 바리스타 챔피언십대회' 운영에 사용됐다. 이번 대회는 옥천·보은·영동 지역 장애인 당사자들이 바리스타 분야에서 갈고닦은 역량을 선보이고, 직업적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전력공사 옥천지사와 한전MCS 주식회사 옥천지점은 지난해에도 총 100만원을 후원



옥천군장애인복지관은 한국전력공사 옥천지사와 한전MCS 주식회사 3개 지점으로부터 총 12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해 제1회 바리스타 챔피언십대회 개최를 지원했다. 올해는 한전MCS 주식회사 영동지점과 동청주보은지점까지 참여하면서 후원 규모와 참여 기관이 확대됐다. 황명구 관장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지역사회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후원금이 참여자들의 도전과 성취를 뒷받침하고, 대회가 의미 있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경 옥천지사장은 "이번 후원이 지역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강춘 옥천지점장은 "이번 대회가 장애인 당사자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장애인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www.043w.or.kr

충북 복지 넷

충청북도의 복지정보와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맞춤복지서비스찾기

SSN 교육

바로가기

복지정보·연구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대관

AI의 도움으로 24시간 끊임없는 돌봄 만든다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보고〉

혼자 있어도 AI가 24시간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 즉시 연결 반복적인 행정업무 자동화로, 복지현장은 사람에게 더 집중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이를 담당할 인력은 크게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 인력 부족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 돌봄 공백은 물론,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은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돌봄 산업 성장을 함께 이룰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 로드맵은 AI를 활용하여 돌봄 서비스와 복지행정 전반을 혁신하고,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드맵은 '든든한 돌봄, 따뜻한 복지, 함께 누리는 AI'를 목표로 ▲첨단기술 기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AI 기반 복지행정 혁신 ▲사람 중심 AI 활용 기반 구축의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편집자주〉

● 첨단기술 기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먼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 돌봄에 AI 기기·장비를 결합한 '스마트 홈'을 구축한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익숙한 환경에서 일상을 유지하려면 정해진 시간에 제공되는 서비스뿐 아니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간의 안전과 건강까지 살필 수 있어야 한다.

돌봄대상자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누가 알까 싶어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현행 재가 돌봄은 종사자가 방문하는 한정된 시간에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외 시간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는 AI가 이용자의 상태를 24시간 살피고 건강·정서·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해 끊임 없는 돌봄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기적인 방문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용자의 일상에 맞춘 지속적인 돌봄을 실현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움직임 미감지나 응급호출 등 개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 상황을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평소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AI와의 대화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한다. 단순히 위기상황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을 넘어, 일상의 변화를 살펴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스마트 홈을 통해 기존 공공 재가 돌봄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AI 기반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소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돌봄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으로 넓히고, 가정에서 복지관·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가정용 AI 자율추종 로봇을 적용해 이용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돌봄종사자

서류 작업으로 어르신과 눈 맞출 시간이
부족합니다. 단순 업무는 기술에 맡기고
'사람'에 집중하는 현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스마트 홈과 함께 돌봄시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스마트 시설' 구축도 추진한다. 시설에서는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담당하고, 신체적 부담이 큰 업무는 돌봄로봇이 지원하도록 해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줄인다. 이를 통해 종사자가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이용자와의 소통과 정서적 교류 등 사람의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영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현행 시설에서는 야간에 종사자가 2시간마다 직접 순회하며 이용자의 안전·수면·배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종사자는 반복적인 확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돌봄 대상자 역시 다음 순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앞으로는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움직임 감지센서

등을 활용해 한곳에서 이용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덜고, 이용자가 체감하는 돌봄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AI·사물인터넷(IoT)·로봇을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설의 업무방식과 운영체계를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스마트 시설 모델을 개발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검증하고,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부터 시작해 민간시설까지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등 시설 유형에 따라 적용 모델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을 개발·활용해 기술이 지원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돌봄체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기술개발과 함께 개발된 기술이 실제 돌봄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도 중요하다.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현장 여건에 맞지 않거나 실증과 사업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돌봄기술 연구개발(R&D)부터 실증·사업화, 현장 확산까지 전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으로 2027년부터 AI·IoT 기반 돌봄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2028년부터는 퍼지컬 AI와 로봇 기술 분야로 연구개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돌봄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적용 가능성과 효과를 검증해 현장 활용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홈과 스마트 시설의 실증환경은 현장 데이터를 축적하고 개발된 기술을 검증하는 거점으로 활용된다. 현장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요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개발된 기술은 다시 돌봄 현장에 적용해 업무 효율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기술개발과 현장 적용이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도록 해 돌봄현장의 변화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범부처 지원체계를 통해 유망 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촉진하고,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된 기술은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품목 확대와 신속 등재, 시설 수가, 이용권(바우처) 등을 활용해 기술의 현장 도입과 활용을 뒷받침한다. 궁극적으로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지속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AI 기반 복지행정 혁신

복지수요자

정말 힘들 때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길 바랐고,
복잡한 신청 절차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AI 기반 복지행정 혁신은 국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가구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복지서비스 이용 과정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찾고,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했다. 다양한 복지제도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는 일부터 쉽지 않았으며,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 역시 이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AI를 활용해 이러한 문턱을 낮추고, 국민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국민이 일상적인 말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 복잡한 제도와 지원 요건을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추천받은 서비스를 '원클릭'으로 신청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에 대해서는 자동지급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찾는 단계부터 신청과 지급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필요한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도 강화한다. 위기가구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학대, 돌봄 공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개별적인 정보만으로는 위기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AI 발굴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경제·고립·학대·돌봄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굴 체계를 고도화한다. 이후에는 생활환경 변화를 AI가 선제적으로 감지해 지원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복지공무원과 돌봄 종사자가 반복적인 행정업무에 쓰는 시간을 줄이고, 상담·사례관리와 직접 돌봄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돌봄 현장의 디지털·AI 전환을 추진한다. 서류 접수·검증과 시스템 입력 등 단순·반복적인 복지행정 업무의 50% 이상을 AI로 자동화하고, 물품관

리·지출결의서 작성 등 돌봄 현장의 일상 행정업무도 단계적으로 디지털로 전환한다. 향후에는 급여 적정성 판정, 부정수급 탐지 등으로 AI 지원기능을 확대하고, 돌봄 현장에서도 근무관리, 상담계획 수립 등 종사자의 업무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복지·돌봄 AI 개발을 위해서는, 현장 곳곳에 분산·축적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복지·돌봄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이용자와 보호자가 자신의 복지·돌봄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관리하고, 본인 동의를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를 의료 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복지·돌봄·건강·의료 정보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공무원

복지 사각지대의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아픕니다.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할 AI 기술이 시급합니다.



● 사람 중심 AI 활용 기반 구축

복지·돌봄 분야에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술을 도입하는 것뿐 아니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복지·돌봄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과 건강,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AI의 판단과 활용 방식이 서비스 이용과 지원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AI 활용과 데이터 연계, 이용자 권리 보호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의 위험 수준에 따른 인간의 개입·감독 원칙과 설명 요구 등을 포함하는 AI 윤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AI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사람의 판단과 감독이 필요한 범위를 정하고, AI의 판단이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와 AI의 성능·오류 점검 등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기술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AI 기술이 실제 돌봄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술 자체의 발전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활용 역량도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사용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현장의 업무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인력 양성과 AI 활용 교육을 확대해 현장의 디지털·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기술 도입이 실질적인 업무 개선과 서비스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AI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 돌봄 현장에서 디지털·AI 전환(DX·AX)을 주도할 강사·리더 요원을 양성한다. 이들이 현장의 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복지공무원과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장 인력이 AI 기술의 활용 방법을 익히고, 실제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해 AI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기술이 제공하는 편의성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이용자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교육이 필요하다. 누구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AI 도입이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지·돌봄 AI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AI 기술의 개발과 활용, 데이터 관리, 현장 적용, 인력 양성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추진 과정 전반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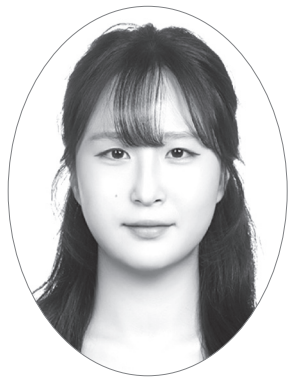
이에 정부·전문가·기업·현장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돌봄 AI 혁신위원회'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양한 주체가 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기관별 지원 역할도 정비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데이터 관리와 AI 안전성 관리,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기술의 현장 적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개발(R&D)·사업화 지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인력 양성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구분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개발부터 현장 적용과 인력 양성까지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처럼 사람 중심의 AI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기술 도입 자체를 넘어 복지·돌봄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정이다. 법·제도와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현장 종사자와 이용자의 활용 역량을 높이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AI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원하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광장



임 지 현

밤나무지역아동센터장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한 지 어느덧 8년이 넘었다.

처음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의 나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맛있는 것을 챙기고, 필요한 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내 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

각이 조금씩 달라졌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자신을 기억해주는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장의 하루는 늘 바쁘다. 계획서와 일지를 쓰고, 평가서를 채우고, 공모사

바나나우유 한 병의 기억

업을 준비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간다. 서류 속의 아이들은 숫자와 문장으로 정리되지만, 정작 아이들은 그 문장 바깥에서 자란다. 센터 문을 열고 들어오며 던지는 인사 한마디, 숙제를 하다 말고 꺼내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말없이 옆에 앉아 있는 시간 속에서 자란다. 나는 그것을 8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배웠다.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던 시절, 한 아이를 돌본 적이 있다. 하루하루 함께 생활하며 먹고, 씻기고, 재우고, 놀아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고, 그 아이는 나에게도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던 중 아이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아이의 상황에 적합한 다른 시설로 이관하게 되었다. 아이에게 더 필요한 환경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조금 더 잘해주었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놓친 것은 없었을까?” 떠나보낸 뒤에도 한동안 미안함과 죄책감이 남았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나는 지금도 가끔 그 아이를 만나러 가고 후원도 이어가고 있다. 어린이날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작은 선물을 보내기도 한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을지

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의 의미가 달라졌다. 내가 아이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지만 한때 그 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계속 응원할 수는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아이와의 기억도 있다. 세 살배기 아이와 시내를 돌아다니며 놀다가 시설로 돌아오기 전, 다리 위에 잠시 앉아 함께 바나나우유를 마셨다. 당시에는 그저 평범한 하루의 한 장면이었다. 그런데 몇 년 뒤 초등학교생이 된 아이가 나를 보며 말했다.

“엄마, 그때 다리에서 먹은 바나나우유 기억나요? 우리 둘이 놀았잖아요, 그때 좋았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마음이 먹먹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수많은 하루 중 하나였지만, 아이에게는 오래도록 간절하고 싶은 특별한 기억이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이들과 보내는 평범한 하루를 예전과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다. 그 시간이 아이 안에서 어떤 장면으로 남을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좋은 프로그램보다 자신과 함께 웃어준 사람을 기억하고, 값비싼 선물보다 함께 보낸 시간을 기억한다. 자신을 기다려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순간을 오래 기억한다.

8년 넘게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며

나는 아이를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던 시선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었다. 성과와 평가가 중요한 현상이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남지 않는 시간이 아이에게는 가장 오래 남기도 한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도 기억해주는 어른이 있다는 사실 아이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정들었던 아이를 다른 시설로 떠나보내며 느낀 좌절감이 응원으로 바뀐 것도 같은 이유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한 사람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존재로 바라보려 한다.

사회복지사의 관계는 과연 어디에서 끝나는 것일까. 시설을 옮기면 끝나는 것일까.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끝나는 것일까. 아이가 더 이상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일까.

나는 아직 그 답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한 가지는 알 것 같다.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도 그 아이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했던 사람으로 남을 수는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건넨 작은 관심 하나가 아이에게는 평생 기억하고 싶은 따뜻한 장면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아이들을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려 한다. 혹시 내가 지나가는 그 하루가, 아이에게는 오래도록 기억될 하루일지도 모르니까.

복지칼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이제 사회가 응답해야



한 영 숙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장

성평등가족부는 10월 5일 보도자료에서 교제폭력·스토킹의 고위험 징후를 알리는 ‘레드플래그 10’ 캠페인 계획을 밝혔다. 친밀한 관계의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하자는 취지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현장에는 가까운 관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의 이야기가 쌓여 있다.

헤어지자고 하면 집·학교·직장으로 찾아오고, 하루 수십 통에서 백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로 회유하거나 협박하기도 한다. 가해자를 차단하고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이직을 시도하고, 집요한 추적이 두려워 개명하기도 한다. 관계를 끝내려 할 때 폭력이 더 분명해지거나 심해지기도 한다.

피해자에게 이별 선언은 관계의 종료이지만, 가해자가 받아들이지 못해 스토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 그만 만나자. 이혼하자”는 말이 또 다른 위협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런 두려움은 연인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 별거나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어진다.

친밀한 관계의 폭력은 부부·동거·연인 관계뿐 아니라 이른바 ‘빔을 타는’ 등 호감을 갖고 만나는 관계, 과거 배우자나 연인이었던 관계에서도 발생한다. 신체적·성적 폭력부터 폭언·협박·감시·집착·경제적·정서적 통제까지 형태도 다양하다. 만남을 거절하거나 관계를 끝내려 한다는 이유로 과거 사진·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심각한 폭력이다. 친밀했던 사이라도 상대의 의사와 선택을 침해할 권리는 없다.

폭력은 처음부터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걱정돼서 그래”,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라며 위치와 만나는 사람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검사하며 우차림과 인간관계에 간섭한다. 부부라는 이유로 돈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일을 못 하게 하거나 가족·친구와의 만남을 제한하기도 한다. 상대의 반응이 두려워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평범한 선택조차 허락받아야 한다면 평등한 관계가 아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알아도 관계를 단번에 끊기는 어렵다. 폭력 뒤 눈물의 사과와 애정을 앞세운 회유 속에서 피해자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상대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 하고, 자극하지 않고 관계를 끝낼 방법을 찾는다. 두려움과 애정, 분노와 연민이 얽힌 관계에는 자녀의 돌봄과 안전, 생계와 주거 문제까지 더해진다. “왜 헤어지지 않았어요?”라는 질문은 이 현실을 외면한 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다.

피해자는 상대의 거절에 대한 반응과 협박을 누구보다 오래 겪어 온 사람이다. 피해자가 말하는 두려움은 없앨 감정이 아니라 위험 판단에 귀 기울여야 할 정보다.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마세요”라고 하기 전에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은지, 헤어지려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물어야 한다. 피해자의 경험을 듣는 데서 위험을 살피고 안전을 마련하는 실천이 시작된다.

‘안전이별’은 피해자가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잘 헤어지는 기술이어서는 안 된다. 더 단호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라는 요구는 안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다. 관계를 끝내려는 선택이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안전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 떠나지 못했거나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보호와 지원에서 배제해서도 안 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365일 24시간 상담·긴급보호·관련 기관 연계 지원하지만, 지원 창구만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지난 9월 가정폭력으로 피신한 여성이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온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은 사회에 충격을 안기고 보호체계의 빈틈을 드러냈다. 도움을 요청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경찰·상담기관·학교·직장·의료·법률·복지기관 등 사회 모두가 피해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관계 정리 이전에 안전하게 머물 곳, 생계와 돌봄, 자녀와 함께 보호받을 조건을 살펴야 한다. 이별 후에도 삶을 이어가도록 돕는 일은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실천이다.

누구에게나 관계를 시작할 자유가 있듯 끝낼 자유도 있다. 그 자유를 위해 안전을 걱정해야 한다며 더 이상 두 사람의 사적 문제가 아니다. 친밀함은 통제를 허용하는 이유가 될 수 없고, 관계를 유지한다고 폭력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함께할 때도 헤어질 때도 안전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우리 사회가 함께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



최 윤 미

해미루실버케어요양원 사회복지사

나는 아동복지와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일하다 요양원으로 이직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의 또 다른 모습을 경험하게 됐다.

같은 사회복지 현장이라도 대상과 환경에 따라 필요한 돌봄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요양보호사님들의 일상이었다.

요양보호사님들은 어르신들의 식사와 위생, 이동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말벗이 되어드리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다.

특히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과정에서는 밤새 배회하시거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요양보호사님을 부르시는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어르신의 불안이나 외로움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

한 어르신께서는 치매로 인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요양보호사님을 부르시는 경우가 있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는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내가 지켜본 요양보호사님은 어르신의 부름을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았다. 어르신이 부르시면 겉으로 다가가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며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셨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르신이 계속 부르시니 그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세히 지켜보니 그것은 단순한 응답이 아니었다. 어르신의 반복되는 행동을 귀찮은 행동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행동 뒤에 있는 마음을 이해하려는 돌봄이 있었다.

어쩌면 어르신에게 계속해서 누군가를 부르는 행동은 외롭거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요양보호사님은 그 부름에 응답하며 어르신에게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어요’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었다.

요양보호사님들은 단순히 어르신의 식사와 위생,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분들이 아니었다. 어르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을 함께하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작은 변화와 감정까지 살피는 분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돌봄이 어르신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경험을 통해 느끼게 되었다.

나 역시 현장에서 따뜻한 돌봄을 받은 적이 있다. 일이 조금 지치고 힘들었는지, 입술이 부르터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한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나에게 말했다.

“예구구, 우리 복지사님 힘들어서 입술이 다 부르셨네. 아이구, 딱하지”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내게는 생각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되었다. 누군가가 나의 작은 변화를 알아봐 주고,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감동의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고 있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매일 어르신들의 작은 변화를 살피고, 불편한 마음을 헤아리며 돌봄을 이어가는 요양보호사님들도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관심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돌봄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살피며 주고받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요양보호사님들의 하루에는 쉽지 않은 순간도 많을 것이다. 반복되는 업무로 인한 신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지치는 순간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어르신 겉으로 다가와 웃으며 이야기를 건네고, 작은 불편함을 살피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요양보호사님들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며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다. 어르신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 역시 존중받고 돌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복지와 돌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그 돌봄을 매일 실천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님들의 마음과 수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날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위로 받았던 따뜻한 한마디를 생각하며, 나 역시 요양보호사님들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분들의 마음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오늘도 어르신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돌봄을 이어가고 계신 모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살피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따뜻한 돌봄이라고 생각한다.



법률홈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상담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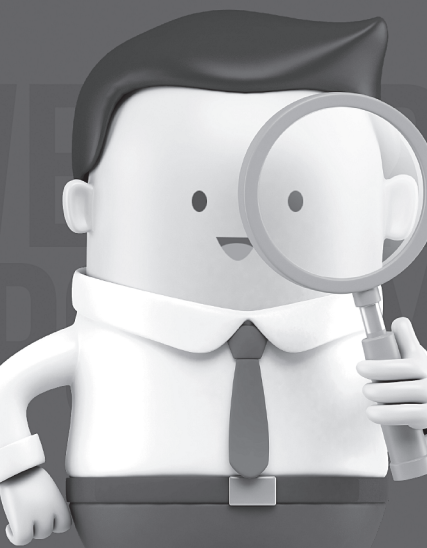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 (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법률홈닥터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똑똑똑! 법률홈닥터입니다.



이 달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최근 뉴스를 통해 이혼한 전 남편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사건을 접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의 잦은 폭행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현재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먼저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피해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폭행 당시의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등 관련 증거도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정폭력과 임시조치

가정폭력이 반복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에는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조치,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법원이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사회봉사·수감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해자에 대한 퇴거·격리,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

면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변 안전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사동정

■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 회장 오창진 / 10월 1일자

인사동정 이용 안내

●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이동(기관장 변경, 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게재를 원하는 시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세나 대리

지역사회봉사단

실버방송국, 라디오로 전하는 건강복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영모, 이하 협의회) 소속 실버방송국은 청주내덕노인복지관에서 복지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주 5회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며 어르신들의 일상에 즐거움과 유익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

실버방송국은 '정오의 음악방송'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강정보와 복지소식을 전달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꾸준한 활동과 공로를 인정받아 실버방송국은 '제20회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우수



봉사단 부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2026 충북 선배시민축제'에서도 충북도지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며 지역사회 노인자원봉사 활동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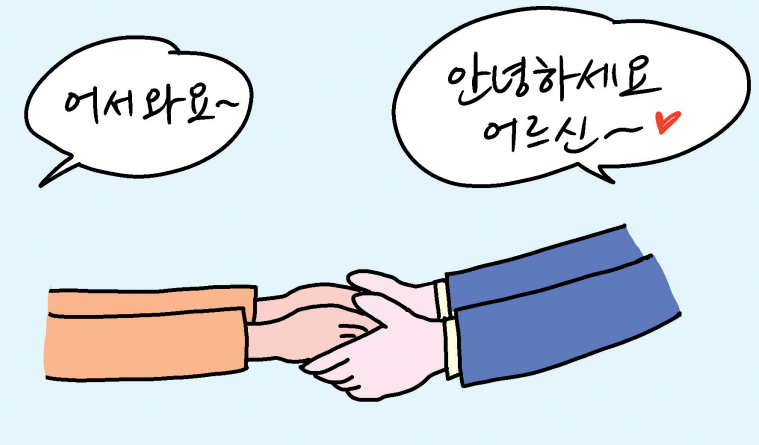
실버방송국은 앞으로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즐거움을 전달하고, 세대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로서 따뜻한 나눔을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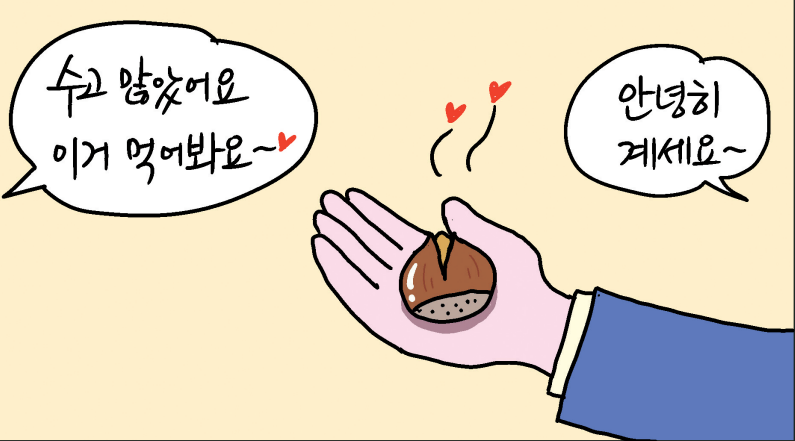
온기

이창신 www.bokmani.com

돌봄 서비스는 마음과 함께 전달됩니다.



그리고 좋은 돌봄은 따스함을 남깁니다.



돌봄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청소년 회복지원

산림치유캠프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 체험료 무료!

참가가능기관

아동양육시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비인가 대안학교, 그룹홈, 쉼터
보호치료시설, 다문화청소년 시설

참가대상 및 일정

운영일정 : 10.26 (월)~11.30(월)
운영장소 : 국립산림치유원(영주,예천)
체험인원 : 최대 50명
신청기간 : 10.8(목)~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및 문의

상담/문의 : 054-639-3424
신청방법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전송
(rnjstkdahr@fowi.or.kr)



숲 스트레칭

숲, 차명상

온열강바체힐

자원 봉사자 모집

▶ **충북사회복지신문 우편발송 작업**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11.1.~11.30.
전화번호: 043-234-0840

▶ **통합돌봄 식사지원서비스 배달**
관리센터: 충주시니어클럽
활동기간: 11.1.~11.30.
전화번호: 043-855-7400

▶ **행정업무 보조 및 어르신 안부전화**
관리센터: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11.1.~11.30.
전화번호: 043-265-5305

▶ **경로식당 무료급식 봉사**
관리센터: 산남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1.1.~11.30.
전화번호: 043-288-1428

▶ **풋살 활동 프로그램**
관리센터: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11.1.~11.30.
전화번호: 043-284-0103

▶ **경로식당 식재료 손질**
관리센터: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1.1.~11.30.
전화번호: 043-266-4761

▶ **사랑의 재봉 봉사**
관리센터: 충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1.1.~11.30.
전화번호: 043-855-3000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